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김종필 | 록원조경 대표  
(장흥식물원)

## 록원조경

### 장흥식물원을 찾아서...

서울에서 정남쪽 남해바다와 만나는 최남단 정남진 장흥.  
동으로 득량만과 서편의 강진만을 끼고 다도해를 향해 길게 뻗어나간 장흥반도 끝자락,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에 자리한 김종필 사장의 록원조경 장흥식물원을 찾았다.

#### 천관산 아래 난대 식물원

록원조경 장흥식물원은 장흥읍에서도 20여km 떨어진 장흥반도 남쪽, 명산인 천관산을 끼고 돌아 나가면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덕읍 소재지 못미처 넓은 들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산 능선과 정상부의 기암괴석들이 주옥으로 장식한 천자의 면류관을 닮았다 하여 천관산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 산은 이밖에도 역세평원과 동백군락지로 유명하여 지리산, 월출산, 변산, 내장산과 더불어 옛 부터 호남 5대 명산 중의 하나다.

농장 뒤로는 천관산이 감싸고, 앞에는 따뜻한 남해바다가 펼쳐진 비옥하고 넓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조성한 록원조경 장흥식물원은 남쪽 지방답게 황칠나무·비파나무·후박나무·굴거리나무·가시나무류와 종려·소철 등 각종 난대 수종들로 이루어진 남도 특유의 식물원이다.

#### 어린시절의 호기심과 흥미에서 시작한 조경업.

그는 40년간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한 선생님이다.

장흥군 대덕읍에서 회사원이며 읍 의원을 지내신 지방유지 집안의 4남2녀 중 4남으로 1949년에 태어난 그는 1969년 목포교육대학을 나와 교편을 잡으면서 어린 시절 집안에서 각종정원수들을 공들여 가꾸시던 부친 곁에서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피는 것을 호기심과 신비감으로 보아 왔던 것이 학생들 실과시간이 되면 어릴 적 잠재의식이 깨어나 꽃과 정원수들에 애착이가고, 특히 부친이 정성 다해 가꾸시던 모습이



정문입구 팽나무고목 등 난대수종들과 작은꽃밭들

눈에 선해 자기도 모르게 추억과 흥미에 이끌려 어느새 부친을 닮아가며 나무를 심고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 총각선생님의 조경수 농장

1975년 그는 장흥읍에 1만 평의 농장을 마련 조경수 재배를 시작한다.

당시 남들은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가던 시절, 새마을 운동이 전성기였던 그때 생소한 조경수 재배를 개척하여, 새벽 5시면 일어나 농장으로 가고, 퇴근 후에도 밤10시 까지는 일을 하는 억척스런 총각선생님으로 장흥지역 농촌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편안한 일상을 버리고 힘든 농사일로 뛰어든다.

처음에는 그저 조경수가 좋아 무조건 덤벼들었던 것이 경제 발전과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당시에는 조경수 재배자도 몇 안 되는 초창기인 원인도 있지만 상품성이 뛰어나 길러 놓기 무섭게 팔려나가 조경수 재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결혼 후에는 부인이 대신 관리 해준 덕도 있지만 우선 조경수 재배가 흥미와 보람도 있고 따라서 수익성도 좋아 2만평 정도로 농장을 확장, 제대로 된 나무들을 키워내려 했지만 장흥읍에서는 토지 구입이 여의치 않아

연고가 있는 시골 고향땅에 지금의 농장을 새롭게 마련, 장흥지역 굴지의 조경수 농장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다.

### 고향땅에 이룩한 새로운 농장

그의 고향은 지금 농장이 있는 대덕읍 연지리에서 2km 떨어진 신정리에서 태어나 1살 때 장흥읍으로 이사를 갔으나 아직도 일가친척들이 많고 처가댁도 이웃 마을이라 교통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와 부인의 고향인 연고도 있고, 무엇보다 농지가 저렴하여 1985년 아쉬운 대로 5,000평을 구입 한 후 매년 조금씩 확장한 것이 지금 6만평의 대형 농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 농사짓는 땅이라 팔려고 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농 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구입이 수월해져 집단화 시킬 수 있었다.

### 정남진 물 축제와 장흥식물원

장흥을 대표하는 명소는 기암괴석의 천관산과 1급수 맑은 물을 자랑하는 탐진강, 그리고 서울의 정 남쪽 바다에 해당하는 정남진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 동쪽 바다와 만나는 곳은 강릉의 정동진, 북쪽 끝은 중강진, 그리고 남쪽으로 정남진에 해당하는 곳은 이곳 장흥식물원이 있는 남쪽 해안이다.

장흥군에서는 TV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 효과에 착안, 전남 3대강의 하나로 공장 하나 없는 1급수인 탐진강과 청정해역 정남진을 알리는 물 축제를 금년 제3회를 맞아 물과 숲-休라는 주제로 멀리 몽골과 제주 성산포의 물을 장흥 물과 합치는 합수식을 갖는 등 여러 가지 행사와 홍보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찾아간 복원조경 장흥식물원은 뒤로는 천관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앞으로는 정남진 바닷가가 펼쳐진 명소에 자리한 데다 각종 조경수들이 공원 같은 수목원으로 잘 꾸어져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급부상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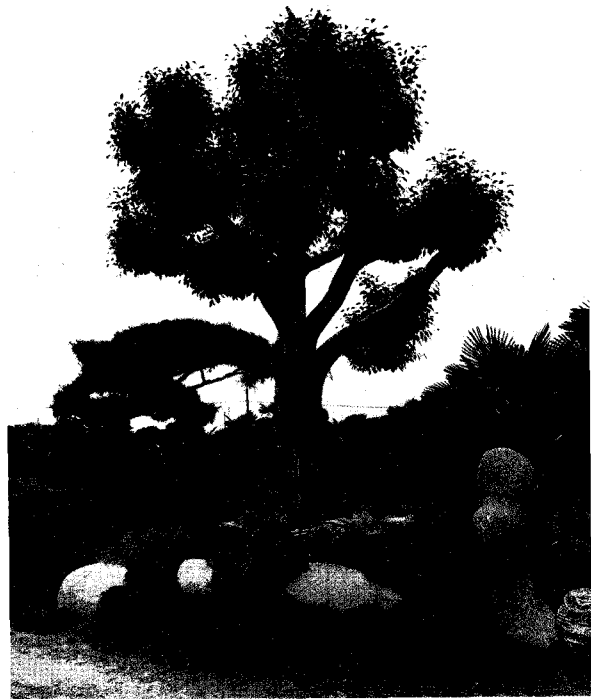
### 난대지역 향토 수종 전문 농장

그의 농장은 따뜻한 남쪽 지역에 어울리는 난대수종 전문 농장이다. 농장 입구부터 야자와 종려, 소철들로 가득 차있어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반짝이는 짙은 초록 빛 잎들의 황철나무·동백나무·비파나무, 후박나무·굴거리나무·가시나무들이 어린 묘목부터 대형 고목까지 다양하게 심겨져 있고, 나름대로 특징을 갖춘 각종 상록 활엽수들로 가득 차 있다.

농장 자체가 따뜻한 남쪽에 자리한 것도 있지만 그의 남다른 고향 사랑과 우리 향토 수종에 대한 애정이 난대 식물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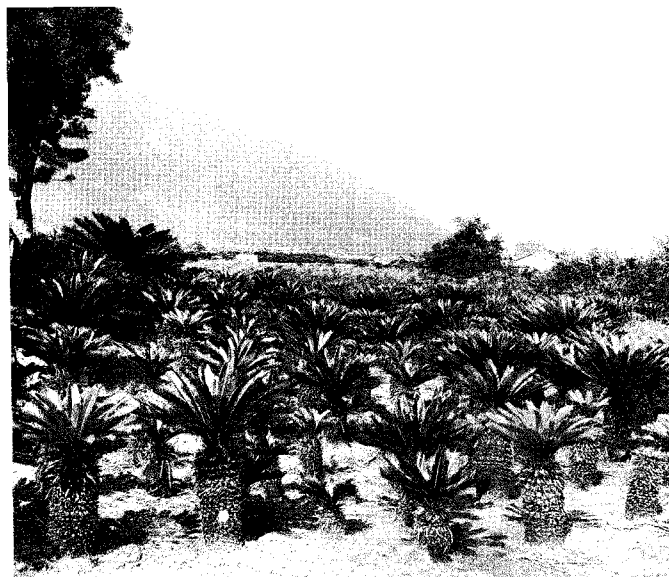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에 따라 난대수종의 인기도 생각 했지만 무엇보다 향토수종을 사랑한 그는 농장 겸 식물원으로 꾸미기 위해 남해안과 다도해 섬들을 구석구석 누비고 멀리 제주도까지 찾아가 개발가치가 있는 종자나 묘목은 물론 대형 조경수들도 주저 없이 구입, 다양한 수종과 크기별로 고루 갖춘 조경수 농장 겸 난대 향토수종 공원 같은 식물원이다.



대형 동백나무고목



천관산과 농장전경



소철포지



종려나무와 황칠나무



대형 황칠나무의 김종필 대표



정문입구 전경

### 황칠나무가 황금나무로

이곳 농장의 대표수종은 황칠나무다. 농장 이곳저곳 크고 작은 황칠나무들이 사방에 심겨져 있다. 지난 200년간 잊혀졌던 황금색 천연 도료인 황칠과 황칠나무. 그 황칠나무의 황금 빛 천연도료와 비전 되어오던 탁월한 약효가 잊혀 졌다가 최근 20년 전부터 그 비법과 효능이 입증되면서 새롭게 인기수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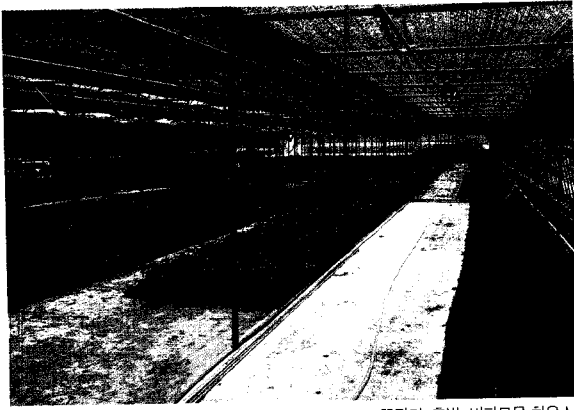
옛날부터 옷칠과 더불어 칠공예의 대표였다는 황칠은 중국 황실의 상징인 황색을 나타내는 갑옷이나 용상 등 귀한 용품에만 사용 했다는 황금빛 도료이며 또한 비장의 약품으로 장보고의 교역 물품 중 황금보다 고가였다고 하던 것이 줄 곳 조공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없애버려 우리 생활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그 황칠의 재현과 약효가 알려 지면서 각광받는 인기 수종이 되었다.

15년 전 사업하는 제자의 권유로 황칠 제품 생산 공동체를 설립, 그때 식재 분야를 맡아 심어놓은 것이 지금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나 황칠나무는 자라나 조경용은 물론 산림수종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나뭇잎 또한 제약용과 식용으로 톤당 250만원에 불티나게 팔리는 이곳 농장의 대표 수종이 되어 현재 1만평에 15만본의 크고 작은 나무들은 그야말로 황금나무 구실을 톡톡히 한다.

### 조경받는 선생님 부지런한 농부

조경인으로 성공한 그의 비결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단기소득 보다는 장기적 전망을 보고 경영한다.  
 둘째: 밀식하지 말고 처음부터 넉넉하게 자리 잡아 심는다.  
 셋째: 잡초와의 전쟁에서 꼭 이겨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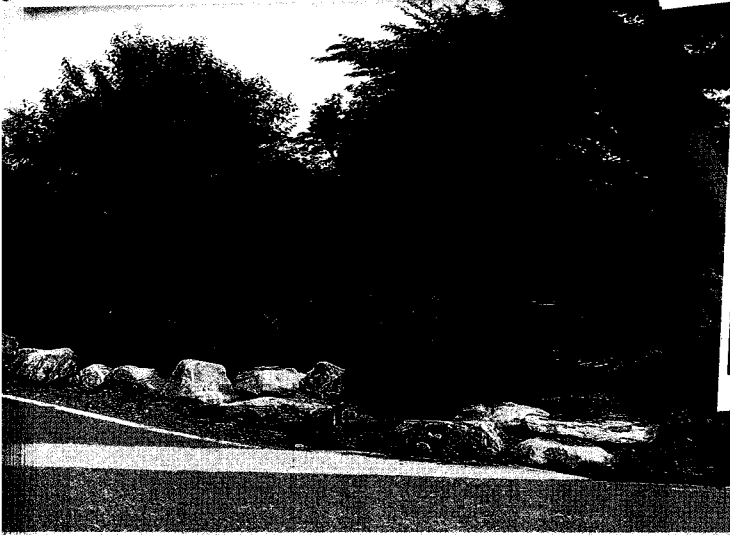
이 3가지는 꼭 지키고 근면과 성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일한다.



꽃잔디, 후박, 비파모목 하우스



대형종려나무



천관산과 농장전경

그의 교사생활 또한 특별하다.  
 혹여 조경수 하느라 교사생활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가 두렵고 억울하다.  
 이제껏 그는 출근하기전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퇴근 후에도 밤 10시까지 일해온 누구보다 땀뻑하고 성실한 선생님이었다.  
 부임하는 곳마다 시골 학생들을 모아 배드민턴·정구·축구부들을 구성, 전국대회 우승도 여러 차례 이끌어낸 열성적인 선생님이었으며, 정신지체아들을 전담하는 특수교사였다.  
 남들이 경원하는 소외된 지체아들을 돌보기 위해 일직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획득,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정성으로 지도 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해마다 한번 씩 장흥지역 정신지체아 70여명과 지도교사 30명을 농장으로 초대하여 나무이름 알려주기과 감자캐기 등 실습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

는 지금도 장애아와의 끈을 놓지 않는 장흥지역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누구나 존경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헌신적인 선생님이었으며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이다.

### 장흥지역 조경인의 구심점

그의 농장에는 대형 비닐하우스가 많다.  
 500평이나 되는 비닐하우스 3개동에는 황칠나무, 비파나무, 후박나무 등 각종 난대수종 들을 대량 양묘, 인기리에 판매하는 보급소 역할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장흥지역에서는 오래된 고목이나 대경목을 이식 할 때는 의례히 그를 찾는 경륜과 기술을 겸비한 최고 권의자이며 그의 농장에서 생산, 굴취 한 나무는 검수 없이 인수하는 지역 조경인의 선구자이며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조경수협회에는 20년 전에 가입하여 교편생활

중에도 협회를 위해 열성을 다했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장흥축구 후원회 회장과 졸업생이 가장 많은 장흥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숨은 일꾼으로 잘 가꾸어진 넓은 농장과 모범적인 생활인으로 정평이 나 있어 우리협회 전남 동부지역 김정인 지회장의 추천으로 소개 하게 된 남도지역에서는 이름난 조정인이다.

### 근면과 열정의 검소한 조정가족

지금의 록원조정 장흥식물원이 있기 까지는 그의 부지런함과 끈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큰 공로는 부인 손효순여사(59세)의 공이 가장 크다 말한다. 남들처럼 선생님 사모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직접 인부들의 식사와 간식을 장만하고 밭에 나가 김매는 고된 농사일을 감당했기에 지금의 연지리농장 6만평과 이외에도 크고 작은 농장 3만평, 도합 9만평의 대농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곳에 6만평이나 되는 대 면적 농장이면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들이나 멋진 사무실 건물이라도 있을 법하지만 정원도 사무실도 없이 조립식 건물의 살림집 겸 관리자 1동뿐인 오직 나무 가꾸기에만 열중인 농장으로 10명의 고정 인부를 두고 연간매출 5억 원 이상을 올리지만 소박하고 검소하기 그지없다.

슬하에 2녀 1남을 둔 다복한 가정으로 위로 두 딸은 일류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며 출가하여 생활하고 외아들은 농장을 계승하기 위해 학업중인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조정가족이다.




종려나무와 황철나무 묘지

### 식물원의 꿈 새로운 도전

그는 지금 새로운 꿈에 도전한다.

그의 농장에는 수종마다 흔히 공원이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둥글고 작은 꽃말들이 꽃혀 있다.

농장을 찾는 주민들이나 특히 전화 오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에서 설치하였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조경수를 생산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나무를 알리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식물원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기에 상호도 장흥식물원이라 하였지만 혼자 힘으로는 너무도 벅차 정남진 해안을 개발할 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꿈의 난대 식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한다. 

양묘용 허우스와 이췌나무 종려나무묘목 묘지 전경

